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전도 제목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성경:누가복음 15장 11-24절

-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눅15:11-24)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성격이 서로 달랐다. 큰 아들은 순종적이고 올바른 아이였다.

둘째 아들은 사고뭉치였다.

결국 둘째 아들이 크게 사고를 치고 말았다. 새파랗게 젊은 늙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고집하였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 주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정리한 다음 며칠만에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물론 꿈이 있었겠지만, 아마 친구를 잘못 사귀었을 것이다.

자기도 모른 사이에 허랑방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되었나 보다. 처음부터 허랑방탕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둘째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

재산은 탕진 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급기야는 거지가 되어 끼니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농부에게 부탁하여 돼지를 치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먹을것이 넉넉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돼지에게 주는 쥐엄열매를 몰래 먹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주인에게 들통이 나서 쫓겨났다.

배가 고프는 중에 고향생각이 절로났다. 아버지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 거렸다. 자기 집안에 풍족한 하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얼마나 풍족한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다. 가서 나를 하인으로 받아 달라고 사정해 보아야겠다.

아직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으니 감히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일꾼들 중에 하나로 여겨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고 발에는 신을 신겨 그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 하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하였다.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표현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이거나,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먼나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는 그 나라가 진짜로 가치 있고,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의 삶은 부끄럽고 유치하고 무식한 삶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진짜 가치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진정한 삶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아버지와는 세대 차이가 난다. 가치가 다르니 역지를 부릴 수 밖에.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먼 나라로 갔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저버리고 다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사람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치가 잘못되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를 향해 가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짜가 가짜가 되었다. 그리고 가짜로 여겼던 것이 진짜가 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가짜에게 속으면서 살수는 없는 노릇.

둘째 아들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 가서 금의환향 하리라 생각하지 않고, 아예 관계를 끊었다. 먼 나라에 갔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자주 연락을 취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더라면 그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관계가 끊어졌으니 그는 죽은 것이다. 전력이 없는 전등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다시 살아난다.

또 구체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다. 이는 병균에 감염되는 원리와 같은 원리이다.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다. 이는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되는 병균을 씻어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병균이나 독이 몸 안에 침투해서 몸 안을 병들게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병균과 독을 제거한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란, 이처럼 악한 생각에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날마다 악한 생각을 씻어내야 한다. 그 악한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세속적이 된다.

세속에 물들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피로 죄를 씻고 경건훈련으로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의가 죽고 주의 의로 살고.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신명기 개요

(신 4장 1-40절)

신명기. 신(申命記)

오늘은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공부하기로 하겠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 교육시키는 책이 신명기이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지 40년이 지나 모압 동편에 모여 가나안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다. 여기 모여 있는 약 60만의 장병들, 어린아이들 까지 합하면 약 200만 혹은 3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기억했다라도 그 기억들이 희미한 사람들이고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 40년동안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제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된 40년동안의 역사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각종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이방신이 있는데 그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러한 환경과 여건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책은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을 편의상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를 설교로 보고 세편의 설교로 나눌 수 있다.

1. 첫번째 설교는 1:1 - 4:43까지 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지금의 시나이반도 제일 아랫쪽)에서부터 모압평지(지금의 요단강 동편인 여리고 마주편)까지 오는 동안 거의 40년동안 하나님께 어떤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역사적인 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4:1을 보자. (다같이 읽을 것) 이곳이 첫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다. 4:1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사건을 말한 다음 이것을 또 당부하고 또 사건을 말한 다음 이것을 또 당부하고 규례를 말한다음 당부하고...그리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도 모른다.

2. 두번째 모세의 설교는 4:44-26장까지이다.

두번째 설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 그들의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5:2-3을 보자. (읽을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해 나가는 초반부에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조상과 맺은 언약은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세가지가 나오는데..."오늘날(현재), 여기(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 나 자신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나온다. 약 1500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1991년 오늘, 대한민국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이라는 점이다. 모세는 말씀의 현재성과 영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5장 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반의무인 10계명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중 가장 기본적인 규례는 10계명이었기 때문에 5장 이후를 보면 십계명을 말하고 해석하고 있다. 10:12-3을 보자. 규례를 말하고 나서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하고 있고 11:8-9을 보자. 10장에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다음 11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율례를 잘 지킨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을 보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것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제사제도와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사제도와 희생의 제물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중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십일조는 왜 강조할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로 그쳐서는 아니되며 무엇인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십일조의 삶을 강조한 것이요 절기를 지키라 한것은 절기는 하나님이 하신일을 기억하는 것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니 이는 예배의 삶과 헌신의 삶과 감사의 삶, 이렇게 세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넷째, 16장 부터 20장까지 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선지자, 제사장, 재판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다섯째, 21장 부터 26장까지 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가족,친구,이웃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해야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위와같은 내용들을 설교적 형태의 결론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6:4-9까지 말씀인데 이는 본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읽을 것)

3. 세번째 설교 부분은 27장부터 30장까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여러번 강조하고 있다. 한구절만 보자. (30:15-18) 이것이 모세가 다시한번 강조한 내용이다. 앞의 28장과 비교해 보아도 역시 같은 말씀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압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가나안땅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는데 29:13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를 세워 자기백성 삼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이다. 이 약속을 가나안땅이 바라보이는 모압땅에서 다시한번 한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동안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나안땅에 들이지 아니하셨나? 아니다. 약속을 이루셨다.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적용해 주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는 약속을 주신다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모두 한다음 결론에 가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 첨가하고 있다. 30:11을 보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면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 예수민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라 말씀하셨나? 11절에 보니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셨다. 14절을 보라. 오히려 행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율례를 쉽게 가볍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만 있으면 쉽다고 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율례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의 일을 보라.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일이 많고 힘이 들겠나?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율례가 결코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율례가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례는 다 행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도 대고 환경이 나쁘다는 핑계도 대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때는 네 중심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4. 31장부터 34장까지는 앞의 모든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식과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인 33:29을 보자. 4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역사를 보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나? 40년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나? 그런데 모세는 죽기전에 이들을 가르켜 "너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민족이 이땅에 또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이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잘먹고 잘쓰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행복의 조건인가?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와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이유이다. 좋은 환경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제 신명기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 버려라.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만 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다. (12:5-)이 말씀은 모세 5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택하신 곳,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런데 이 율례는 솔로몬까지 잘 지켜졌는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북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브엘세바에 제단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

지 아니하신다는 말이다.

셋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일들...을 생각하여 신앙을 마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같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내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과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삶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다. 이말씀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순종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 너희가 고난위에 고난을 연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마지막 다섯째번로 강조하는 것은 11:26을 보자. 여러가지 교훈을 말한후 모세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다. 그 선택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이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순종의 길만 선택하기를 바란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의 책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

보통 책의 이름은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므로 이름을 보면 무슨 책인지 대강 알게 됩니다.

성경 책의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의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 민수기 (民數記)는 인구조사를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는 모세오경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집입니다.

광야 생활 40 년 동안 출애굽 1 세대는 대부분 죽었고, 출애굽 역사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2 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총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신약에 많이 인용된 성경중의 하나 인데 ,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4:4, 4:7, 4:10) 이 모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책 이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요?

‘신명’의 ‘명’ 자는 하나님의 명령/율법에 대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신명’ 전체의 뜻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도 ‘신명’이란 단어는 없고, 다만 신명기가 구약 성경이라는 설명만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는 한자로 <申命記>라고 적는데 이는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 하였습니다.

‘申’자는 남신자이며 뜻은 옛말로 원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申’자에는 거듭할 ‘重’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申’자는 신고(申告), 신청(申請)이란 단어에서도 사용합니다. ‘命’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申命記>는 하나님의 율법(계명/가르침)을 다시 기록한 성경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엘레 하 드바림’ (이것은 ...말이다) 또는 줄여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명기 1장의 첫 구절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구절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명기란 책 제목은 히브리어 원 제목과는 서로 다릅니다.

신명기의 책 제목이 히브리어 원본과 다르게 된 까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70인역’ 성경

에서 유래합니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은 B C 2세기 무렵 헬라계 유대인 학자 72명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의 헬라 통치자 톨레미 2세의 명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때 히브리어 책 제목 ‘엘레 하 드바림’을 헬라어로

‘두번째 율법’이란 뜻의 ‘듀테노미온’으로 정한 것 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앞의 율법책(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반복하여 총 정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번역학자들이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인 대도시였고 수많은 히브리인이 살았는데, 히브리인 2세와 3세들은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70 인 역 성경은 자국어(를 잘 모르는 히브리 후손들을 위해

탄생 했고, 그 후 예수님 시대를 포함한 수백 년 동안 널리 사용되고 전파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신명기가 ‘Deuteronomy’ 인데 이는 헬라어 성경 이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헬라어 70 인 역에서 다섯 권 모두 새로 정해졌습니다

이때 정해진 성경책 이름이 영어 성경 책 이름이 되고 한국어 이름으로 되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성경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히브리어	음역 중국어	히브리어 뜻 한국어
Genesis	베레쉬트	創世記	처음에 창세기
Exodus	쉬모트	出埃及記	이름들 출애굽기
Leviticus	와이크라	利未記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Numbers	바미드바르	民數記	광야에서 민수기

데바림

말씀들

Deuteronomy

申命記

신명기

이제 신명기 읽기가 시작된 2012 년 전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과
관련하여 신명기 이름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